

#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4일 가슴 울리는 독특한 창법 무대 만날 수 있어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공연이 오는 4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1일 전당에 따르면 4년 만에 갖는 이번 공연의 제목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마중금 시인의 '우화와 강'의 한 구절인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결이 튄다"에서 인용했다. 그의 노래는 삶의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노랫말과 절절한 가락으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준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서정춘 시인의 '11월 처럼', 허형만 시인의 '구두', 한상호 시인의 '뒷집' 등 신곡 4곡을 모악당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꽃구경', '떨레꽃', '빛과그림자', '뽕백아가씨' 등도 노래할 예정이다.

장사의 목소리 가요도 참도 아닌 자신만의 곡삭은 창법으로 노래하는 타고난 노래꾼이다. 그의 독특한 창법과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울림, 그리고 가슴에 저머 드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공연이 오는 4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는 슬픔 뒤에 남는 파산과 희망이 그가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다.

한편 마흔 다섯, 늦은 나이에 데뷔한 장사익은 1집 '하늘가는 길'을 시작으로 9집 '자화상'까지 9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중음악, 국악, 재즈를 넘나들며

구심지고 비장하면서도 폭발적인 창법으로 마니아층을 만들어 온 그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서는 열정이 넘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려

영화 음악 연주 · 협연 무대 펼쳐... 향후 유튜브 통해 공연 영상 송출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관우)이 운영하는 제3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일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대면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무주군과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공연 영상은 향후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라이온킹(The Lion King)과 캐리비안의 해적, 디즈니 영화 OST 등 유명한 영화 음악 연주와 함께 바이올린, 플루트, 트럼펫 파트의 단원과 강사가 함께 협연하는 무대를 선보이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안미영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은 "산골영화제와 무주반디불축제,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무주군의 많은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며 "음악 지식과 음악 전반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내 9~15세 취약계층 청소년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감독 1명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트럼본, 타악기 등 악기별 강사 12명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방과 후 3시간씩 악기 파트별, 앙상블, 합주 교육이 실시됐으며, 교육은 1인 1악기 무상 대여해 진행 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고단한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온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며 "참여 하는 단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희망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국 공모전 수상작 10점 발표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터 마루달은 제3회 '오늘하루 우리놀이' 전국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사라져가는 우리놀이 문화를 알리고, 다음세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40여 일간 이뤄졌다.

그 결과 '고누' 놀이를 주제로 호박고누, 줄고누, 나홀로고누, 참고누 형태에 자유롭게 그리거나 꾸민 작품 총 105건이 접수됐다. 고누란 땅·나무·돌 등에 놀이판을 새겨 넣고 자신의 말을 움직여 상대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잡아서 승패를 가르는 놀이다.

/장은성 기자

이날 전당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작품의 창의성 △주제 표현력 △완성도 등을 고려, △전주시장상에 '신비한 숲속 고누놀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상에 '우주고누' △최우수상에 '숲에 왕고누' (저학년), '한옥고누' (고학년) 등 총 10명을 선발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통놀이의 재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놀이를 생활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전주박물관, 제3기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21일까지 제3기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국립전주박물관 제3기 대학생 SNS 기자단은 취재 분야(글, 사진)와 영상 제작 분야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 전북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자단은 박물관의 전시 및 문화행사, 교육프

로그램 등을 취재해 SNS를 통한 박물관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 또 활동사례비, 활동증명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연말에는 우수기자를 선발해 국립전주박물관상을 수여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국립전주박물관 제3기 대학생 SNS 기자단 지원 희망자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 발간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삶을 구술로 풀어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전승하는 데 일생을 바쳐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삶과 무형문화재 전승 과정을 국민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7년부터 발간된 자서전은 올해 발간된 5권을 포함해 총 50권이다.

이에 따르면 자서전은 2011년부터 진행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사업'에서 확보한 구술 자료를 기초로 시간의 흐름과 주제별로 묶어내는 등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재편집 과정을 거쳤다. 또한 구술 내용에 등장하는 시대 상황이나 사건, 인물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독자들이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발간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에는 용기장 김일만 보유자, 기지시줄다리기 구자동 보유자, 남사당놀이 고(故) 박용태 보유자, 종묘제례 이기전 보유자, 양주별산대놀이 김순희 보유자의 생애와 활동이 각각 담겨 있다.

/장은성 기자

# 익산시, '문화예술공간 오늘' 개관

원광대 대학로에 청년문화 거점공간 조성... 첫 개관전 '오늘의 시작' 개최

익산시가 대학로에 문화예술공간을 새롭게 선보이며 지역예술인들과 청년들의 예술 활동이 활발한 문화도시로 도약한다.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예술공간 오늘'이 원광대 대학로 복일초등학교 맞은편 예스타타워 건물 1층에서 1일 개관한다.

'문화예술공간 오늘'은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협력해 지역 예술인들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이자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 개관전으로는 '오늘의 시작'을 주제로 이달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학생, 지역 및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인 조은영 총감독의 기획으로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들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작품 전시(12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23.1.5~2.8)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전시(23.2.16~3.20)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원광대 미술대학 재학생들의 작품 아트마켓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개관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는 언제든지 청년작가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뛰어난 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문화도시의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